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Parenting Stress\*

김정미(Jeong Mi Kim)<sup>1)</sup>

문승미(Sung Mi Moon)<sup>2)</sup>

김유경(Yu Kyung Kim)<sup>3)</sup>

안선희(Sun Hee Ahn)<sup>4)</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97 mothers of 1~3 years old children at daycare centers in Daegu,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were not-significantly related, but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A close look at th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while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did not influenced directly parenting stress,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was a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In particular, when a mother and caregiver

---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sup>2)</sup>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sup>3)</sup>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sup>4)</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Ah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 shahn@khu.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develop a positive relationship,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lower.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aregiver is very important.

**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어머니-교사 관계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 I. 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구조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부모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녀의 출산은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한편 새롭게 부여된 역할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 부모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던 자녀양육의 간접 경험은 줄어들고,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가 변화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을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할분담보다는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책임이 지배적이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에 있어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기술이 부족하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Crnic과 Greenberg(1990)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아기는 유아기에 비해 성인의 끊임없는 신체적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 Hadadian과 Merbler (1996)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와 낮은 안정애착관계를 보였다. Hertenstein(2002)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스낵집을 통해 어머니의 좋지 못한 상태가 영아에게 전달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하기도 하는데(Abidin, 1990), 이러한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특히 발달단계상 영아기에 속하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크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Suh & Kim, 2012).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그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부모특성 요인, 아동특성 요인, 가족차원 요인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 관점(Crnic & Low, 2002)과 어머니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과 사회적 지원과 지원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Belsky, 1984; Reis, Barbera-Stein, & Bennett, 1986)가 진행되어 왔다(Lee, 2011).

이 중 아동 특성 요인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

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Yu & Lee, 1998; Lee, 2003)가 있는 반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Deater-Deckard & Scarr, 1996; Eun, 1999; Kim, 2001; Yu, Choi, & Lee, 1998)도 있다. 영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영아는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어머니는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Lee & Seo, 2009).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반복적으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이어져 양육자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부여된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심신의 부담 모두를 경험하게 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Kim, 2001; Moon, 2004; Seo, 2004; Pyun, 200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의 기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어머니 특성인 양육지식이 최근 제시되고 있는데(Kim & Song, 2007; Moon, 2001; Ahn & Park, 2002; Lee & Oh, 2006; Hyun, 1993; Larsen, Juhasz, 1986; Miller, 1988),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의 연령에 맞는 발달지식과 양육지식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육 실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이어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지식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내적 기준인 발달시간표를 구성하게 한다(Lee, Chang, & Lim, 2004; Yoon & Cho, 2004; Macphee, 1984; Ninio, 1979). 또한 부모가 연령에 적합한 발달수준을 인식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발달상의 과잉기대를 줄이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Harolyn, Katara, Elizabeth & Nicholas, 2013).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자신의 양육에 대한 확신 부족이라고 보고하였다(Kim, 2005).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의 욕구가 다르며, 서로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Bigner, 1985). 영아는 부모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ong & Kim, 2008).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은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Belsky, 1984; Gaze, 2005; Mulson, Caldera, Persley, & Reifman, 2002; 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Melson, Lad와 Hsu(1993)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지지자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양육과제를 보다 덜 어렵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Östberg와 Hagekull(2000)도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확장되거나 지역사회 구성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함한다(Baumrind, 1995). 실제로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유아교육기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으로서, 선행연구들(Kang & Cho, 1999; Kim, 2000; Moon, 2004)에서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요인은 기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교사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교사는 영유아를 매개로 관계형성을 시작하며(Son, 2008),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교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유아의 발달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하며, 교사에게 민감한 부모로 인식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교사와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Lee, 2005; Chang, 2005). 이처럼 어머니와 교사 간에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형성의 부재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영아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장시간 맡긴다는 생각에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Chi & Hong, 2001).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Wittmer & Petersen, 2006) 어린 시기부터 보육 시설을 경험하는 영아에게는 부모와 교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요구된다.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교사와 서로의 가치, 신념, 행위를 나눔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Lee, 2006)는 점에서 중요하다. Rudolph와 Cohen(1984)은 부모와 교사의 협력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관점을 교환하여 유아를 전인으로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Law(1993)는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의 제공자인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Epstein(1993)은 부모와 교사 협력을 통해서 부모가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자기 가치를 느끼고 자기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cBride 등(1995)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유아를 지도했을 때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보면 부모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사와 나누었을 때 그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는 교사와 협력하여 유아를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나 과업을

해결해 나갈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어머니-교사 관계는 어머니에게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교사로부터 양육 상담과 양육지도 등의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지 특성 측면에서 어머니와 교사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두 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8개의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만 0~2세 학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

(N= 297)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Age	20s	16( 5.4)
	30s	249(83.8)
	40s	32(10.8)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65(21.9)
	2-year college	119(40.1)
	above 4-year university	113(38.0)
Mother job	employed	107(36.0)
	unemployed	190(64.0)
Income	200≤	28( 9.4)
	201~400	186(62.6)
	400>	83(27.9)

급에 자녀를 둔 어머니 29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3세에서 46세로 평균 35.04세( $SD = 3.37$ )이고, 30대가 249명(8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5명(21.9%), 전문대졸은 119명(40.1%), 대졸 이상이 113명(38.0%)으로 전문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한 어머니는 107명(36.0%), 비취업 어머니는 190명(64.0%)으로 대부분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9.4%였고, 201만원에서 400만원의 경우 62.6%를 차지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Larsen과 Juhasz(1986)의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변안한 Yoon(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다. 원래 KCDI는 출생부터 3세까지 영아의 정서 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50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을 읽고 4개의 보기항목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정서발달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①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② 안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준다, ③ 잘못된 것에 대해 옳게 가르쳐 준다, ④ 울지 않도록 가르친다.’

와 같은 보기를 주고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옳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 1점,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해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정서발달(14문항), 인지발달(13문항), 신체발달(11문항), 사회성발달(12문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 2) 어머니-교사 관계

어머니-교사 관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Elicker, Noppe, Noppe와 Fortner-Wood(1997)가 제작한 ‘부모-교사 관계 척도(PCRS : Parent-Caregiver Relationship Scal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육시설에 영아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부모용 PCRS와 교사용 PCRS로 구분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부모용 PCR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의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13문항), 협력(14문항), 친밀(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뢰는 ‘담임교사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등이, 협력은 ‘나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담임교사가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등이, 친밀은 ‘나와 담임교사는 친밀하지 않은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교사 관계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신뢰는 .84, 협력은 .89, 친밀은 .7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을 번안 수정한 Ahn(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의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집안일을 할 때,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거나 거린다.', '나는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꾸어야만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성가시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1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광역시의 영아전담보육시설 10곳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문지는 유아를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47부의 질문지를 8곳의 보육시설 학부모 중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297부(회수율 66.4%)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교사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증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전체 평균은 50점 만점에서 36.52점( $SD=4.69$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하위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12.01( $SD=1.75$ ), 인지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10.23( $SD=1.57$ ), 신체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6.42( $SD=1.34$ ), 사회성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7.82( $SD=1.98$ )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정서발달 85.78%, 인지발달 78.69%, 신체발달 58.36%, 사회성발달 65.17%로 나타났다.

어머니-교사 관계의 경우, 전체 문항을 합한 평균은 4.14( $SD=.40$ )로 5점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는 4.22( $SD=.37$ ), 협력은 4.13( $SD=.47$ ), 친밀

&lt;Table 2&gt;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N= 297)

Variables	Sub-factor	Items	M(SD)	%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development	14	12.01(1.75)	85.78%
	Cognitive development	13	10.23(1.57)	78.69%
	Physical development	11	6.42(1.34)	58.36%
	Social development	13	7.82(1.98)	65.17%
	Total	50	36.52(4.69)	73.04%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13	4.22( .37)	
	Collaboration	14	4.13( .47)	
	Affiliatio	8	4.01( .48)	
	Total	35	4.14( .40)	
Parenting stress	Total	18	2.37( .53)	

은 4.01( $SD = .48$ )로 모두 4점을 넘는 점수를 나타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37( $SD = .53$ )로 5점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2).

##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F = 8.33,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20대 어머니와 30대 및 40대 어머니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30대 및 40대 어머니가 20대 어머니보다 영아기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20.35, p < .001$ ).

또한,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발달( $F = 11.94, p < .001$ ), 인지발달( $F = 9.53, p < .001$ ), 사회성발달( $F = 15.36,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양육지식 총점과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발달은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발달은 전문대졸 이하 어머니보다 대졸이상의 어머니가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mother's age

		20's( <i>n</i> =16)	30's( <i>n</i> =249)	40's( <i>n</i> =32)	<i>F</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2.19(1.72)	11.98(1.81)	12.13(1.26)	.18
	Cognitive	8.75(1.48)a	10.29(1.51)b	10.56(1.72)b	8.33*
	Physical	6.25(1.53)	6.48(1.35)	6.06(1.16)	1.50
	Social	7.44(2.25)	7.85(1.97)	7.78(1.96)	.33
	Total	34.63(4.76)	36.59(4.70)	36.84(4.52)	1.42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0( .41)	4.24( .36)	4.11( .40)	1.78
	Collaboration	4.04( .39)	4.14( .47)	4.05( .50)	.93
	Affiliation	3.83( .44)	4.04( .47)	3.90( .53)	2.41
	Total	4.05( .36)	4.16( .40)	4.04( .43)	1.63
Parenting stress		2.54( .52)	2.35( .52)	2.43( .59)	1.16

\**p* < .001.

<Table 4>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 <i>n</i> =65)	2-year college ( <i>n</i> =119)	above 4-year university ( <i>n</i> =113)	<i>F</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18(2.14)a	12.03(1.62)b	12.47(1.46)b	11.94*
	Cognitive	9.80(1.49)a	10.01(1.50)a	10.72(1.58)b	9.53*
	Physical	6.17(1.28)	6.41(1.32)	6.58(1.39)	1.91
	Social	6.86(2.06)a	7.71(1.66)b	8.48(2.01)c	15.36*
	Total	34.02(4.75)a	36.16(4.03)b	38.33(4.59)c	20.35*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3( .39)	4.20( .41)	4.23( .31)	.26
	Collaboration	4.10( .55)	4.10( .48)	4.18( .41)	.88
	Affiliation	3.98( .50)	4.05( .51)	3.99( .42)	.85
	Total	4.12( .43)	4.13( .44)	4.15( .34)	.18
Parenting stress		2.38( .51)	2.34( .56)	2.40( .51)	.28

\**p* < .001.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4)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양육지식의 총점

<Table 5>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mother's job

		employed (n=107)	unemployed (n=190)	t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93(1.93)	12.05(1.65)	-.56
	Cognitive	10.21(1.72)	10.24(1.49)	-.14
	Physical	6.35(1.49)	6.46(1.25)	-.72
	Social	7.79(2.06)	7.83(1.94)	-.16
	Total	36.38(5.21)	36.59(4.39)	-.36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6( .35)	4.20( .38)	1.33
	Collaboration	4.16( .45)	4.11( .48)	.75
	Affiliation	4.01( .47)	4.01( .48)	.05
	Total	4.16( .38)	4.12( .41)	.82
Parenting stress		2.35( .55)	2.38( .51)	-.56

<Table 6>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family income

		less than 200 (n=28)	201~400 (n=186)	400 above (n=83)	F
		M(SD)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18(2.39)a	12.06(1.71)b	12.17(1.51)b	3.65*
	Cognitive	9.43(1.77)a	10.19(1.61)b	10.59(1.32)b	6.06**
	Physical	6.00(1.39)	6.40(1.30)	6.60(1.39)	2.17
	Social	7.04(1.95)a	7.63(1.92)ab	8.49(1.97)b	8.19***
	Total	33.64(5.60)a	36.30(4.50)b	37.98(4.29)b	10.05***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42( .33)b	4.16( .38)a	4.29( .34)ab	8.38***
	Collaboration	4.26( .60)c	4.06( .45)a	4.24( .43)b	5.43**
	Affiliation	4.15( .52)c	3.95( .47)a	4.10( .45)b	4.34*
	Total	4.29( .46)b	4.07( .39)a	4.23( .38)ab	6.86**
Parenting stress		2.31( .59)	2.41( .52)	2.30( .52)	1.41

\*p < .05, \*\*p < .01, \*\*\*p < .001.

( $F=10.05, p<.001$ )과 정서발달( $F=3.65, p<.05$ ), 인지발달( $F=6.06, p<.01$ ), 사회성발달( $F=8.19, p<.001$ )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201~400만원 및 400만원 이상 집단과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교사 관계 총점( $F=6.86, p<.01$ )과 신뢰( $F=8.38, p<.001$ ), 협력( $F=5.43, p<.01$ ), 친밀( $F=4.34, p<.05$ )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 집단이 201~400만원 집단보다 어머니-교사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과 친밀 하위요인에서 200만원 이하 집단이 201~400만원 집단과 400만원 이상 집단보다 어머니-교사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 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고, 어머니-교사 관계( $r=-.22, p<.001$ )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상승변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공차한계는 .98 이상, VIF 계수는 1.02, Durbin-Watson 지수는 1.97로 나타남으로써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Table 7>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14*		
Parenting stress	.02	-.22**	

\* $p<.05$ , \*\* $p<.001$ .

<Table 8> The relativ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odel	Variables	B	$\beta$	t	R <sup>2</sup>	F
1	Parenting knowledge	.05	.02	.39	.00	.15
2	Parenting knowledge	.11	.05	.92	.05	7.70*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15	-.22	-3.90**		

\* $p<.01$ , \*\* $p<.001$ .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교사 관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5% 가량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7.70, p<.01$ ). 이 단계에서 투입된 어머니-교사 관계( $\beta=-.22, p<.001$ )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과 개인적으로 교사와 가깝고 공감적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협력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주목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의 전반적인 경향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특성인 양육지식과 사회적 지원 특성인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 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전체 평균은 50점 만점에서 36.5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들(Yang & Cho, 2009; Lee,

Chang, & Lim, 2004; Huang, Caughy, Genevro, & Miller, 2004)보다 높지만 Yoon과 Cho(2004)와 Kim, Cho와 Jung(2007)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009)이 제시한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이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육관련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의 연령이 높고 둘째 이후의 자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첫째 자녀의 양육경험이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발달영역별로는 정서발달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발달과 사회성발달 순서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발달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발달영역별 양육지식의 정답률은 선행연구들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은 사회성발달이나 신체발달보다 정서발달과 인지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Yang & Kim, 2012; Kim & Song, 2007)와 일치하며, 인지, 정서발달 순으로 높은 양육지식 수준을 보고한 Kim과 Song(2007), Yang과 Cho(2009) 및 Cho 등(2006)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신체발달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어머니들이 신체발달과 관련된 발달적 이정표는 책이나 잡지, 소아과, 양육경험자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정보 등으로 쉽게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발달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발달

다음으로 인지·사회성 발달 순서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최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대상자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기에 자녀의 애착과 관련한 정서발달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져 정서발달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들이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 인지능력에 대한 기대, 어떻게 상호작용해주고 반응을 해줘야 발달적으로 적합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영아의 연령과 상황에 적절한 양육기술 및 방법에 대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교사 관계의 전체 평균은 4.14점으로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신뢰, 협력, 친밀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영아 전담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 연령, 취업유무, 가정의 월수입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Kim & Song, 2007; Ha, 2004) 및 어머니의 취업상태(Kwon & Rha, 2010; Sohn, 2012)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Lee & Choi, 1993; Pyun, 2004)에서는 젊은 어머니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의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학력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Kim & Yoon, 2000; Kim & Song, 2007; Pyun, 2004)가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수입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해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수준 차이를 보였다. 30대 및 40대 어머니가 20대 어머니보다 영아기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자원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육지식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전문대졸 집단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전체적인 양육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발달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에서 집단 간

의 차이를 보였다. 정서발달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으며, 인지발달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발달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성발달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어머니-교사 관계가 소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식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취업모는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의 정보원에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충분한 자녀 양육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은 비취업모와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Lee et al., 2004). 이에 대해 취업모의 경우, 등·하원 시간 동안 교사와 짧은 만남이지만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관계에서 일반모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201~400만원 및 400만원 이상의 집단과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양육지식의 총점과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

달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양육지식에 대한 부모교육에 접할 기회가 높아진다는 사실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교사 관계 총점과 신뢰, 협력, 친밀감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어머니-교사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교사 관계에 있어서 월수입이 적은 어머니의 경우, 영아의 자녀를 맡길 기관이 많거나 다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교사에게 보다 의존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육지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Kwon, Chung과 Park(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Kim & Song, 2007; Lee, 2009; Yang & Kim, 2012)와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어머니들이 다양한 면에서도 정확한 양육지식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높았지만, 양육경험의 양과 질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특성, 가족 내 지원 정도, 자녀의 발달수준 및 기질이 보다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한명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비슷한 수준의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첫 번째 자녀의 양육 경험으로 인해 둘째 영아기 자녀를 양육할 때 보다 수월함을 느낀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양육지식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머니의 자녀 수와 자녀 양육 경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Lee, 201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와 교사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낮 시간동안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 동안 자녀의 일상을 교사로부터 전해 들음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교사 관계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육시설과 가정의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긍정적인 어머니-교사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는 교사와 가깝다고 느낄 때, 교사를 믿고 신뢰할 때,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길 때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어머니-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교사와 나누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교사로부터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임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부모-교사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다양한 서적, 여러 매체, 주위 사람을 통하여 바람직한 양육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제적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나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단순히 인지적인 요인 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

교사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어머니-교사 관계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for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Baumrind, D. (1995). Child maltreatment and optimal caregiving in social contexts. Garland reference library of social science (Vol. 1007). NJ : Garland.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ner, J. J. (1985). Parent-child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 Macmillan.
- Chang, J. W. (2005). Parent involvement for building partner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i, S. A., & Hong, H. K. (2001). *Living habits instruc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Seoul : Yangseowon.
- Cho, B. H., Jung, M. J., & Kim, Y. E. (2006). A study on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of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1), 89-109.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7). Hillsdale, NJ : Erlbaum.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Elicker, J., Noppe, I. C., Noppe, L. D., & Fortner-Wood, C. (1997). The parent-caregiver relationship scale : Rounding out the relationship system in infant child car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8*(1), 83-100.
- Epstein, J. L. (1993). Theory to practice :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 leads to school improvement and student success. In C. L. Fangnano & B. Z. Werber(Eds.), *School, family, and community interaction*(pp. 39-52), Boulder, CO : Westview.
- Eun, S.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 children's daily stres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Gaze, C. M. (2005). Parenting stress over time :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ypical developi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rk, PA., USA.
- Ha, J. Y. (2004). A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Journal of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3, 37-51
- Hertenstein, M. J. (2002). Touch : Its communicative function in infancy : *Human Development*, 45, 70-94.
- Huang, K. Y., Caughy, M. O., Genevro, J. L., & Miller, T. L. (2005).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quality parenting among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mothers.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6, 149-170.
- Hyun, O. K. (1997).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H. K., & Cho, B. H. (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41-55.
- Kim, E. Y. (2005). Th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ysfunctional discipline practice to child's adjustment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G.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ocioemotional investment in the child of mothers with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A., & Lee, J. W. (1990). A study on the stress level perceived by the married women during family life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31(12), 101-117.
- Kim, L. J., & Yoon, C.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Y. E., Cho, B. H., & Jung, M. J. (2007). Prevalence study of mothers' percep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 comparison between years 2002 and 2007.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3(2), 68-85.
- Kim, Y. J., & Song, Y. S. (2007).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475-493.

- Kwon, J. Y., Chung, M. R., & Park, S. K. (2012).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toddler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6*(3), 143-160.
- Kwon, Y. H., & Rha, J. H. (2010). Effects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child-rearing variables on their parenting stres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arsen, J. J., & Juhasz, A.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Lee, H.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Korean Journal of Ope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8*(3), 337-354.
- Lee, J. L. (2011). A proposal on childcare support policy through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2011 Policy Seminar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3-30.*
-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H., & Seo, S. J. (2009).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87-102.
- Lee, K. Y., Chang-Song, Y. K., & Lim, H. J. (2004). The study on Korean mothers'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child-re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1), 45-63.
- Lee, M. J. (2006). Teacher-mother communicatio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ng satisfaction rate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E. (2010).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and parent-caregiver partnership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 H. (2005).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S., & Choi, W. S. (1993). An effect of individual resources on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 97-109.
- Lee, Y. H., & Oh, M. Y. (2006).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3), 47-62.
-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5), 1401-1417.
- Miller, S.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oon, H. J. (2001). Relevant variables of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1), 35-49.
- Moon, H. J.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09-112.
- Mulsow, M., Caldera, Y. M., Persley, M., & Reifman, A.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 Ö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ark, S. Y., & Rubin, K. H. (2008). Toddler's gender and temperament by maternal stress as predictor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09-124.
- Pyun, E. S. (2004). The mother's role of recognit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from infants to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Reis, J., Barbera-Stein, L., & Bennett, S. (1986).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35*(4), 547-554.
- Rudolph, M., & Cohen, D. H. (1984). *Kindergarten and early schooling*. Prentice-Hall, N.J : Englewood Cliffs.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E. K.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 Seo, J. S. (2004). The research on the working mother'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focused o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Gangwon-do, Korea.
-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on, S. R. (2008). Analysis of mutual perception for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teacher in the classes for 1, 2, 3 years old children at day-care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Y. S.,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Suh, J. H., & Kim, J. K. (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101-121.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06).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 *A relationship-based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Yang, M. S., & Cho. B. H. (2009). A study on knowledge and expectation of child development of mothers with an infa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8*, 149-166.

- Yang, M. S., & Kim. Y. E.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3), 229-247.
- Yoon, H.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ing and home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H. J., & Cho, B. H. (2004).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59-88.
- Yu, W. Y., & Lee, S. (1998).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 focusing on the parenting stressor,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0), 65-78.
- Yu, W. Y., Choi, J. N., & Lee, S. (1998).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16(1), 51-61.

---

2013년 6월 30일 투고, 2013년 10월 4일 수정  
2013년 10월 14일 채택